

2001. 4.

- 第61回 忠州市議會 臨時會 市政質問 -

答 辯 要 旨 書



農 政 局 長

質問要旨書 目錄

| 連番 | 質問議員 | 質 問 要 旨 | 所管部署 | 備 考 |
|----|------|---|---------|-----|
| 1. | 김대식 | ○상모면 관내 안보리 동지들의 상습 한발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대책은 무엇인지? | 농업정책과 | |
| 2. | 정규용 | ○폐광된 갯로를 저온저장시설로의 계획은 없는지?(일신산업 갯로) | 농업정책과 | |
| 3. | 하성대 |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인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 농업생산지원과 | |
| 4. | 이승의 | ○사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보호나무)현황과 관리실태는? | 산림녹지과 | |
| 5. | 김원석 |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등과 관련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민들의 해외연수를 부활 실시할 용의는? | 농업정책과 | |
| 6. | 임병현 | ○농업인의 경영(기술)을 지원하고 농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자기혁신을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키 위해 시에서 컨설팅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 | 농업정책과 | |

答辯要旨書

| 質問議員 | 김 대 식 | 答辯公務員 | 농 정 국 장 |
|--|-------|-------|---------|
| <p><input type="checkbox"/> 질문요지</p> <p>“상모면 관내 안보리 동지들의 상습한발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대책은 무엇인지?”</p> | | | |
| <p><input type="checkbox"/> 답변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모면 동진이들은 안보리 450번지 일대의 뜰을 일컫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은 안보리 대안보 마을에 속하지만 대안보 마을과는 그네 고개를 경계로 하여 조금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온천리 관동마을과 연결된 지역임 ○ 동진마을 옆에 위치한 들녘이라고 하여 동진이 뜰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게 되었으며, 동진이 뜰과 윗 동진이 뜰로 구성된 지역임. ○ 동진이 뜰은 1980년대 이전만 하여도 약 20ha에 달하는 전답으로 구성되어 있던 들판으로써, 그 당시에든 매년 한발이 발생하여 동진이뜰 아랫녘 온천주유소 앞 석문천에서 2단 또는 3단으로 양수를 하여 모내기를 하던 지역이고, ○ 상모면 일대에서는 거의 매년 동진이뜰 모내기만 끝나면, 모내기 작업이 완료될 정도로 한발 상습지역임. | | | |

- 현재 동진이뜰은 도시확장으로 인하여 대부분 택지화 되었고, 일부, 논들은 밭으로 전환하여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논으로 경작되고 있는 곳은 머릿골 마을 밑으로 있는 윗동진이뜰의 다랭이 논 약50필지에 3ha인 9,000평정도만 있으며,
- 이중 개인 소형관정인 곳이 약 3,000평 정도되며, 소형관정 도 한밭시에는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이 대부분임.
- 윗 동진이뜰 중 밭작물이 재배되는 경지를 제외한 논들은 평시에는 고운리방향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머릿골 도랑물을 받아서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 모내기철인 5~6월에 한밭이 계속되면 머릿골 도랑에 물이 말라서 모내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비가와서 개삼이 터져야 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밭 우심지역임.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모면 주면과 충주시장님과 대화 시에도 건의가 되었던 사항으로, 머릿골 도랑을 가로 막아 간이보나 소류지를 조성하여 물을 가두어 두었다가 한밭시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한 여러가지 한밭 대책이 건의되었던 바, 이에 대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음.

○ 검토사항

| 구 분 | 사 업 명 | 소 요 사업비 | 내 용 |
|------|----------------------|---------|--|
| 제1대안 | 간이보 또는 소류지조성 | 2억원 | 불가 (사유)①급경사지로써 여름철홍수시 수해피해 ②상류 복사토로 금방 메꾸어 짐 |
| 2 " | 대형관정 굴착 | 1억원 | 불가 (사유)①온천지역으로 온천법상 불가 ②온천지역이외라도 온천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 |
| 3 " | 석문천양수 (양수지점:안보) | 8억원 | 불가 (사유)①안보마을 기존 보 사용자 및 경작자도 한발시 물부족 현상 |
| 4 " | 석문천양수 (양수지점: 온천주유소앞) | 2억원 | 불가 (사유)①생활하수 온천욕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지하 송수하므로, 한발시 석문천 물이 마름 |
| 5 " | 밭 전환사업 | 1억원 | 일부가능, 일부불가 (사유)①소유자 대부분 외지인이고 경작자 대부분이 임차농으로 밭전환 수월 ②고래실논 30%정도는 밭전환 불가능 ③정주권사업으로 농로 개설후 추진 |

- 위와같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보았음.
- 동진이 뜯은 행정구역상 안보리에 속하지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온천리와 더 연접되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하 관정을 굴착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지형 여건상 간이보나 소류지조성 또는 석문천에서의 양수가 어려움.
- 현재 논으로 경작되는 9,000평중 약 6,000평은 밭 전환사업을 권유 실시 하고 고래실 논 약 3,000평은 천수답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答辯要旨書

| 質問議員 | 정 규 용 | 答辯公務員 | 농 정 국 장 |
|--|-------|-------|---------|
| <input type="checkbox"/> 질문요지 <p>“폐광된 갯로를 저온저장시설로의 계획은 없는지?(일신산업 갯로)”</p> | | | |
| <input type="checkbox"/> 답변요지 <p>○농산물유통과 관련하여 저온저장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정규용 의원님께 감사.</p> <p>○국내의 폐갱도 활용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에서는 광물 박물관, 버섯재배, 광풍욕장 • 충남도에서는 버섯재배, 새우젓 숙성 • 전남도에서는 새우젓 숙성 • 저희 도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폐갱도는 1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천시는 봉양터널을 주민들 농로로 활용, -청원군은 3개소로 식수와 냉풍이용 식당, 양송이재배 -영동군은 창고로 활용 -괴산군은 2개소에서 농막과 식수원으로 활용 -단양군에서는 적성터널에 새우젓 숙성창고로 활용. <p>○우리시 관내 활용하고 있는 광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양면 조동리의 터널로 현재 표고버섯 재배사로 활용 • 양성면 월포리의 갯도는 주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 | |

○일신산업 목벌광산의 일반현황

- 면적은 약 2,000ha로 대부분 폐쇄되고 현재 남아있는 광구는 3개 광구

-1광구는 현재 백운석과 활석을 채광하는 광구로 덤프트럭 통행이 가능하며, 갱도내 30~100평 정도의 오메가 형(Ω)굴이 28개소가 있어 현재, 회사 자재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일신산업측에서는 폐광구를 활용하여 광물박물관, 저온·정온 창고, 백운석에서 나오는 살균력을 이용한 버섯재배사 등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때 저희 농정분야 행정기관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협조되었음.

-2광구는 광원들이 채광을 위해 통행로로 사용,

-3광구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폐광구이나 출입구가 협소하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어려운 광구로 효용가치가 없는 광구임.

○우리시 저온저장고 현황

- 저온저장고에 보관되어야 할 농산물은 사과, 배, 고구마, 밤 등으로써, 그 중 밤을 비롯한 타 작물은 현재로선 별 문제가 없으며, 저장의 필요성이 있는 작물은 사과와 배가 주종을 이룸.

- 사과, 배의 경우 우리지역 전년도말 총생산량은 31,827톤으로 사과, 배가 동일하게 조생종이 23%, 만생종이 77%로 파악 되었으며,
- 저온저장고 총 소요예상은 3,063평으로 기설치한 저온저장고가 1,470평, 추가 설치는 1,593평 정도가 소요됨.
- 추가설치 필요량에 대해서는 100평 이상은 농림지원사업으로, 소규모는 지역특화사업과 자부담 설치 계획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온·저장시설은 연중 활용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여 전기료와 기술부족 등으로 많은 농가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갯도이용 저온저장 시설계획

- 갯도 여건상 수직갯도는 실용성이 없으며 수평갯도가 이용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광구는 회사측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계획수립 발표 후 최대한 협의하여 저장시설, 버섯재배사 등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음.
- 그러나, 갯도내 온도가 13~15℃로써 고구마저장과 버섯재배사는 현재 상태로 이용 가능하나, 사과·배의 경우는 저장 적정온도가 1~4도를 유지시켜 주어야 하므로 별도의 냉방시설, 보냉 및 보관을 위한 출입문 설치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 또한 위치적으로 시내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운송비가 가중되는 문제점도 있음.
- 정규용 의원님께서 우리농산물 저장·보관등에 좋으신 의견을 지적해 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신산업 갯도 및 타 면지역의 폐갯도를 활용한 저온저장시설에 대하여 실용성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음.

答 辯 要 旨 書

| 質問議員 | 하 성 대 | 答辯公務員 | 농 정 국 장 |
|---|-------|-------|---------|
| <div>□ 질문요지</div> <p>“논농업직불제 시행으로 인한 다소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p> | | | |
| <div>□ 답변요지</div> <p>○논농업 직불제는 당초 신청기한인 2월에서, 1개월 연장하여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총 대상은 9,117농가에 8,340ha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억 5천2백 3십 2만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임.</p> <p>○지금까지 신청된 실적은 8,570농가, 6,037ha로 지금 예상액은 13억 7천4백 4십9만 6천원이 되었음.</p> <p>○우리시의 농가 11,565(농업통계상 농가)중 논농업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300평이하 농가, 순수 밭작물 재배농가(과수농가 포함), 양논·양계 전업 농가 등을 제외하고 대상농가인 9,117농가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신청을 촉구하였으나, 94%인 8,570농가 가 신청을 하였으며, 참고로 우리 道 평균은 92% 임.</p> <p>○신청하지 않은 547농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전용 허가신고 및 개발예정지 3건, • '96년이후 취득후 처분명령 불이행자 8건, • 지원금 소액으로 미신청자 31건, • 논에 타작물 재배농가 391건. • 소유주와 경작자 갈등 114건 등으로 분석되었음. | | | |

○이중 지원금 소액으로 미 신청과 소유주와 경작자 갈등으로 인한 미 신청
전에 대하여는, 논농업 직불제의 취지가 남득이 되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내년부터는 신청이 되도록 하였음.

○또한 신청이 된 농가중 임차농인 경작자가 소유주로부터 계속 임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정부로부터 실제 돈을 수령한 후 소유주에게 주면서
계속 경작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염려되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농가가 신청할 때에는, 농업직불제 금액에 해당하는
유기질 비료등 농자재를 공급하도록 하는 길을 터 놓았으나, 우리시의 경우
현재까지 신청된 건수가 없음.

○향후, 소유권을 빌미로 경작자가 받아야 할 논농업직불제 지원금을 소유자가
받는 사례가 있으면, 보조금을 즉시 회수하고 농지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 등을 하겠음.

(※ 농지법 제10,11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 31조의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答辯要旨書

| 質問議員 | 이 승 의 | 答辯公務員 | 농 정 국 장 |
|--|-------|-------|---------|
| <div>□ 질문요지</div> <p>“시에서 관리하는 보호수(보호나무)현황과 관리실태는?”</p> | | | |
| <div>□ 답변요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먼저 보호수 지정 및 현황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을 대상으로 보호수로 지정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 보호수 지정현황은 주덕읍 대곡리 맹동마을 느티나무를 비롯하여 102개소에 총 275본이 있음. ○당초에는 59개소에 67본에 불과하던 보호수를 1999년도 12월28일자로 확대 지정하여 충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음. ○수종별로는 전래적으로 친숙한 느티나무가 157본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소나무100본 기타 팽나무, 은행, 회화, 향, 버드, 상수리, 옻, 말채나무등이 지정되어 있음. ○다음은 보호수 관리실태에 대한 답변으로, ○수간이 부패되거나 구멍등이 생겨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한 보호수에 대하여 1990년부터 2000년까지 동량면 조동리 장선마을 느티나무를 비롯한 총10개소 10본의 보호수에 대하여 18,740천원을 들여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5본에 10,000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보호수의 보존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음. | | | |

- 또한 역사적, 문화적, 학술적가치가 있는 많은 보호수들이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거나 고사위기에 처해 있던 것을, 2000년도 보호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연보호에 대한 경각심 및 애향심을 갖도록 90개소에 29,970천원의 사업비로 보호수 표주석을 설치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높였으며,
- 아울러 보호수 주변을 마을정서와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시설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개소에 10,000천원으로, 주변 정비작업을 하였으며, 금년에도 4,000천원으로 사업계획 중에 있음.
- 앞으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거목, 노목, 희귀목, 정자목, 풍치목등을 확대발굴하여 지정할 것이며, 보호수관리를 위한 예산 또한 점진적으로 늘어 나가,
- 기 지정된 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보호수의 수명을 늘리고 자연보호에 대한 경각심, 애향심을 고취, 보호수의 훼손과 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 주민 자율관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을주민 중 신망이 있는 인사로 보호수 관리자를 지정 위촉하여 자율관리체제로 구축토록 하였음.
- 또한, 다음세대와 후손들을 위하여 보호수 후보목을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거목감으로 키워나가는 방안도 계속 강구하겠음.

答 辯 要 旨 書

質問議員

김 원 석

答辯公務員

농 정 국 장

□ 질문요지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선진 농업기술 습득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민들의 해외연수를 부활 실시할 용의는?”

□ 답변요지

- 우리시에서는 지난 '92년부터 '97년도까지 16회에 걸쳐 115명의 농업인단체 회원과 사과, 채소를 재배하는 전문 농업인들이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지에 해외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음.
- 그러나, IMF사태가 닥쳐와 '98년 이후 현재까지 해외연수 사업이 중단된 상태임.
-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에 선진농업과 우수한 경영기법을 견학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우리 농업인들도 해외 연수를 다녀와야 하는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 있으나,
-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으로 보아서 당장 부활하여 시행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앞으로 국가 재정상태와 경제가 호전되어 여건 조성이 되면 농업인의 해외연수를 적극 검토하겠음.
- 다만 우리 농업인의 정보화·세계화 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거의 미칠 만큼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해외연수의 방법은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지난 92년부터 97년까지 시행된 농업인 해외 연수 일정 및 해외연수지역을 면밀히 검토한 바, 연수 국가 및 지역이 너무 편중되어 있고 연수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었다고 생각됨.

○이미 지나간 해외연수는 초기 단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계화 의식이 상당수준에 이른 우리 농업인들이 해외 연수를 할 경우,

○대상지역을 여기저기 돌아 다니도록 계획하지 말고, 일개국 일개지역을 선택하여 한 부문에 대하여 상당기간 심층 깊게 연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됨.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여건이 호전되어 농업인 해외연수가 실시될 수 있다면 연수방법을 개선할 계획임.

○또한 해외연수 또는 해외 벤치마킹 이후 귀국보고회나 전달교육등이 철저히 되도록 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방법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우리 시비를 지원하는 농업인 해외연수는 금액이나 인원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인 단체 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되도록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음.

答 辯 要 旨 書

| 質問議員 | 임 병 현 | 答辯公務員 | 농 정 국 장 |
|---|-------|-------|---------|
| <p><input type="checkbox"/> 질문요지</p> <p>“농업인의 경영(기술)을 지원하고 농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며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주체를 육성키 위해 시에서 컨설팅비용을 일부지원하여 농업경영 컨설팅사업을 추진 농가소득을 제고할 의향은 없는지?”</p> | | | |
| <p><input type="checkbox"/> 답변요지</p> <p>○우선 농업분야 경영 컨설팅사업의 취지와 그간 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p> <p>○이 사업은 정부에서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시작한 이래 경영규모와 시설 장비는 현대화가 진전되었으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농업의 경영능력 향상 등이 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농업분야에도 전문경영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99년부터 정부농림사업에 도입되었음.</p> <p>○따라서, 이 사업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농업경영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사업으로 정부 농림사업 지침상 사업주관을 도단위로 하여 시범적인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는 신청·접수등 보조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음.</p> | | | |

○이 사업은 농가에서 신청하면 개인의 경우 국·도비 보조지원 3~5백만원, 자부담 3~5백만원으로 총사업비 6~10백만원을 컨설팅회사에 지급하고 컨설팅회사에서 년중 농가에 경영기술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컨설팅회사의 선정은 도가 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우리도에서는 금년중에 음성14, 옥천1, 영동1개 농가에서 신청하여 1차 지정을 받았으나, 우리 시에서는 농가 자부담 문제와 경영컨설팅 사업후 경영개선 효과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음.

○또한 이와 별도로 농업진흥청에서 농업경영컨설팅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10,268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컨설팅 추진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단계에 있음.

○우리시에서는 2002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으로 22,000천원의 정부예산을 신청하였지만, 정부예산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농가 자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참여농가를 선발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앞으로 관내 농가 및 농업인단체 등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농림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을 시·군에서 주관이 되도록 하고, 전실하고 능력있는 컨설팅회사가 많이 생겨나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착실한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